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21년 겨울 · 75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발행일 2021년 12월 22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이재범 편집위원 강현자·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경 진행 김유정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영 가옥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1년 겨울 75호

기획 / 익산

- 04 | 판도라의 상자
- 08 |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 12 | 숨은 시간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전시실산책

- 16 | 미륵사 석등, 백제의 빛을 밝히다

회원마당

- 20 | 썰라썰라와 후구리뚜구리
- 24 | 낙원은 어디에

박물관 탐방

- 28 | 새롭게, 소중하게, 슬기롭게

박물관 소식

- 32 |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숨은전시

- 33 | 조선의 혼밥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기부회원 명단



판도라의 상자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커어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이 향가로부터 익산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바로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이다. 고대의 사랑 이야기를 꼽자면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익산 금마 일대가 마한국이었다고 한다. 마한은 백제 시대 때 금마로 불렸다. 서동은 건마(금마)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내력을 『삼국유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마를 파는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를 사모하여 신라 땅에 가서 아이들에게 마를 주며 이 노래를 퍼뜨리게 하여, 결국 선화공주와 혼인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서동은 백제 무왕이 되었다.’

는 기록과 함께. 더 나아가 『삼국유사』의 <무왕>조에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를 가던 중 용화산 밑의 큰 연못에서 미륵 삼존이 출현하자, 사찰을 짓고 싶다는 부인의 청을 받아들여 연못을 메운 후, 법당과 탑, 회랑 등을 각각 세우고 ‘미륵사’라 하였다.”는 미륵사 창건 설화까지 밝혀 놓았다. 이로 인해 백제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와 서동 설화는 밀접하게 관련을 맺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그랬다. 2009년 1월, 미륵사지 서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봉영기를 열기 전까지 익산은 선화공주 이야기로 백제 문화의 꽃을 왕성하게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었으니. 그날, 서석탑 심주석 상면 중앙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되었는데, 사리와 함께 발견된 사리봉영기의 얇은 금판 위에는 미륵사에 탑을 세우고 사리를 안치한 연유가



금제사리내호

금동제사리외호



사리장엄구, 국립익산박물관

193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내용 중 ‘기해년(639년)에 백제 왕후인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 절을 세우고 사리를 맞아들여 모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리봉영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미륵사를 지은 무왕의 비는 신라의 선화공주로 알려져 있었다. 선화공주야말로 『삼국유사』에 전하는 서동요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사리장엄구의 발견은 639년에 백제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입증하였고, 백제사에서 미륵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하긴 했지만, 무왕의 비가 백제 고위 관료인 사택씨의 딸이라고 하여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서처럼 선화공주가 미륵사 창건을 발원했으나, 오랜 세월이 걸려 완공되었기 때문에 완공을 보지 못하고 일찍 타계한 뒤 다른 왕후가 서석탑을 세웠을 개연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미륵사지 서석탑



서석탑 석인상

‘사리봉영기에 그냥 왕후라고 하지 않고 굳이 성씨를 밝힌 것으로 보아, 무왕의 비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한다. 선화공주를 잃고 싶지 않은 염원들이다. 하지만 사택씨 왕후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해서 선화공주가 무왕의 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 학계의 뜨거운 논쟁은 여섯 차례의 학술대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금동향로, 국립익산박물관



청동보살 손,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는 백제의 무왕과 왕후가 발원하여 건립한 목탑과 석탑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다. 본래 3탑3금당 형식의 독특하고 장대한 가람 배치를 가진 거대 사찰이었다. 현재는 덩그러니 두 개의 석탑과 당간지주만 남아 있다. 그럼에도 사찰 터의 위용은 여전하다.

미륵사지를 웅장하게 빛내고 있는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탑으로, 목탑의 구조를 석재로 구현한 최초의 예이다. 1층 탑신부의 기둥은 목조 건축물처럼 두께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민흘림 기법으로 멋을 냈다. 기둥 위에 판판한 돌을 겹쳐 얹은 평방



치미, 국립익산박물관

과 창방, 그리고 살짝 들린 처마의 지붕까지 목탑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목조 건물처럼 1층 탑신부의 네 면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렇게 목조 형식의 서석탑은, 동석탑과 같이 본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에 6층 일부까지만 남아 흉물스러운 상태로 오랜 세월을 버텨오다가 2001년에 보수정비를 시작하여, 2019년에 드디어 6층의 동쪽 부분만 남은 미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다.

탑의 서쪽 부분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채 동쪽 부분만 남아 있는 모습이 잃어버렸던 역사의 시간들을 쌓아 놓은 듯 애잔하다. 처마 끝에 풍경도 달지 못한 채 미궁의 이야기를 품고서도 당당하게 백제의 기개를 뽐내고 있다. 탑의 네 모퉁이에는 석인상이 탑의 모든 내력을 수호하듯 합장하고 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넘은 사랑은 과연 실존했을까? 어쩌면 사리봉영기는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오히려 선화공주 관련 설화의 신빙성이 높아진 것은 아닐까. 사리장엄구의 발견으로 미륵사 건설 시기와 발굴 당시의 구조가 서동 설화를 소개한 『삼국유사』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



미륵사지 중원 목탑 모형, 국립익산박물관

였으니.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 있는, 아직 열리지 않은 희망에서 선화공주가 백제의 무왕인 서동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삼국유사』의 기록과 더불어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희망은 모든 것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서동 설화 또한 1,400년이란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이야기이지 않은가.

천년의 사랑이 숨 쉬고 있는 곳, 현재 익산은 그들의 흔적으로 넘쳐난다. 미륵사지를 비롯하여, 서동생가 터인 마룡지, 서동공원, 서동축제 등등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흔적을 노래하고 기리며, 역사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의 작가 노신은 이렇게 말했다.

“희망이란 원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또 없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 🐼

강현자 회원



제석사지 폐기장 출토 소조천부상 머리부분, 국립익산박물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신도시 개발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것은 호재인가 악재인가? 주변 땅값이 치솟을 텐데 내 땅은? 토지 보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지역민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더 알고 보니 보통 신도시가 아니라 수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럴 수가! 비록 아직 행정수도는 못 됐지만 처음 그 계획을 접했던 세종시 원주민들 심정이 이와 비슷했을까? 사실 그 수도는 왕이 살러 오는 왕도가 될 거라고 했다. 왕은 당연히 사비(부여)의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여기 금마(익산)에 새 왕궁을 짓는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왕이 되기 위해 사비로 갔지만 고향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다. 그래서 이궁이나 별궁 정도 짓나 했는데, 넓은 땅에 기초를 튼튼하게 다진 네모 반듯한 성곽과 축대를 비율을 딱딱 맞춰가며 공사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다.

큰 나라 중국의 도성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다. 또 가까운 곳에 제석사라고 하는 커다란 절을 발원했는데 고래로 왕도에는 제석사를 두었더라. 제석천이 금강저를 들고 아수라를 물리치듯이 왕실을 지켜달라는 의미이다. 권세가의 딸인 왕비가 근처에 또 미륵사라는 큰 절을 발원했다. 이쯤 되면 빠박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 궁궐의 주인은 백제 무왕이라고 칭하고 궁궐 터는 익산 왕궁리 유적이라고 부른다.

사실 이쪽 동네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예로는 기원전 2세기 무렵 어느 날, 북쪽 나라의 왕이 갑자기 바닷길로 내려와서는 이 지역에 도움을 만든 적이 있었다. 그는 준왕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고조선의 왕이었다가 위만이라는 자에게 밀려나 이곳에 정착하러 왔다는 것이다. 앞서 무왕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때는 설레는 사람들보다 심란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다. 왕을 따라 망명해온 유민들은 원주민들과 새 도움에서 별탈 없이 함께 어울려 잘 살았을까?

그렇게 익산에는 건마국이 자리 잡았고 준왕이 마한왕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 과정은 생략할 수밖에 없더라도

일단 그들이 정착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한의 수장국 행세까지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준왕의 도움 자리는 아직까지 확정 지을 수 없어서 미륵사지 뒷산의 미륵산성 자리라는 설이 있긴 한데, 무왕이 그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엔 왕궁리 유적이 준왕의 도움인 기준성이라는 설도 유력했더라.

영원한 권력은 없기에 세월이 흘러 마한의 수장국 자리는 천안의 목지국에게 빼앗기고 뒤이어 또 북에서 온 백제가 마한을 장악해나갔다. 그래도 그땐 간접 통치라서 한성백제의 최전성기라는 근초고왕이 한창 활약하던 시기에도 실상 남쪽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았을 터이다. 하지만 건마국의 세력이 예전 같지 않아지자 백제는 익산의 입점리와 웅포리에 자리한 다른 고조선계 집단을 지원하여 내부에 친 백제 세력을 키웠다. 결국 5세기에 이곳은 백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그리고 입점리 고분군은 그 증거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웬만한 무덤들은 진작에 도굴되거나 일제강점기 때 도굴이나 다름없는 발굴을 당했지만 이곳은 그런 불행을 피한 곳이었다. 침을 캐러 산에 갔던 고등학생이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알려져 있



입점리고분 출토유물,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요충석탑 출토 청동방울, 금동여래입상, 유리제사리병, 금제사리내함, 국립익산박물관





금당지에서 바라본 왕궁리 오층석탑

는데, 2017년 박물관회 정기 답사 차 이곳에 왔을 때 들은 뒷 이야기에선 근처 식당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 산에 올라가다가 무덤 천장이 무너지며 발이 빠져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라 무섭지도 않았는지 무덤 안을 이리저리 뒤져서 금동관모 등 유물들을 갖고 나왔다고 한다. 이것을 익산군청에 신고하면서 발굴이 시작되자 이 지역의 지배자들이 높은 위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는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답사 갔던 그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그가 위쪽에서 유적지의 풀을 베고 있었다.

다시 왕궁리 유적으로 돌아가 본다. 이곳의 주인인 무왕은 명성에 비해 여러 면에서 베일에 싸인 사람이다. 일단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가 의견이 분분하고, 어쨌든 왕실의 후예라 왕이 됐을 텐데, 왜 사비가 아니라 익산에 살았는지, 어찌다가 왕이 되었는지, 오랜 세월 전국적으로 유명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왕비가 누구였는가까지도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래도 그의 어머니가 이곳 출신인 것은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익산 사람들은 여기서 마한의 후예이기도 한 강력한 백제의 왕이 배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뿌듯해했을 것 같은데, 도성까지 들어선다 하니 이제야 진짜 백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지만 무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아들인 의자왕은 이곳의 새 궁궐을 버리고 사비로 돌아가버렸다. 대략 계산해보면 그는 부왕이 이 궁궐을 짓는 것을 다 봤을 나이였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백제가 망했다. 신라는 나당전쟁에 참전한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었던 보장왕의 후손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해서 금마저에 정착시켰다. 아마 안승도 잠시나마 무왕의 궁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예전엔 그도 이 유적의 주인 중 하나로 꼽혔더랬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 땅이었

을까? 전략적 요충지라서? 그저 여기에 빈 궁궐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곳이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부친인 무왕의 본거지였던 곳이라 신라에 대한 반발심을 여간해선 누그러뜨리기 힘들니 겸사겸사 취한 조치일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보덕국은 오래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떠난 궁궐은 사찰의 강당이 되고 금당이 되고 그 앞엔 목탑이 들어섰다. 역시나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목탑이 헐리고 그 자리에 크고 잘생긴 석탑이 세워졌다. 고려시대까지는 절이 유지되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절도 버려지고 그 흔적은 땅 속에 파묻혀버렸다. 그리고 몇백 년간 오층석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그 자리를 지켰다.

동네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그 탑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일하러 나가거나 이웃 마을에 갈 때 탑이 보이면 합장 한 번 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때가 되면 그 앞에서 제도 올렸다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그 탑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그들의 조상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직접 그 탑을 쌓았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점차 허물어져가는 탑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누군가가 기단부에 흙을 쌓아 지탱시켜 놔다. 그렇게 버텨준 탑 덕에 그 자리부터 시작하여 쉽게 발굴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들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기 위해 국립익산박물관에 갔다. 석탑 안에서 긴 세월을 견뎌내고 세상에 나온 아름다운 사리장엄구부터 뒷간에서 용변 후 뒤처리용으로 사용했던 나무막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그들의 흔적이 그곳에 있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발굴은 아직 진행 중이라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관람을 하던 중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눈길을 끌었다. 무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익산 쌍릉에서 나온 나무 널 파편들을 이어 붙인 것이었다. 멀리 일본에서 수입한 금송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 쌍릉에서 나온 인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는 쌍릉의 주인이 무왕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었다. 고고학과 과학은 기록이 부실한 시대의 이야기를 연결해주고 더 실감 나게 해줬다. 역시나 익산은 무왕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삶이 얹힌 고도古都였다고. 🐉

서유미 회원



왕궁리 수로유적



쌍릉 대왕릉의 나무 널, 국립익산박물관

숨은 시간을 느려 밟는 중입니다



춘포역

익숙한 듯 낯설, 익산은 20년 전부터 그런 곳이었다. 적막한 옛 고도에 마음까지 젖어들어, 잠자리를 찾다 들어선 시내는 당시 지방 도시와는 결이 다른, 눈이 휘둥그레지는 핫플레이스였다. 미륵사지석탑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고 세계유산인 백제왕도로서 위상을 접할 때마다 이 도시에 대한 궁금증과 그 장면은 겹쳐졌다. 시간을 담은 도시는 특별함이 있다. 일제강점기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섰던 본정통 문화예술거리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한창인데, 주현동 일본인 농장 사무실 지하에 금괴가 묻혀 있다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백제 왕궁과 미륵사지 지척에서 봉인해둔 삶의 흔적을 쫓는 움직임이라니. 솔깃한 마음으로 근대 문화재와 연관된 다양한 공간들과 판소리 단가의 주인공인 만석꾼의 후덕함을 만날 수 있는 마을을 찾아 나선다.



옛 만경강



호소카와 농장 대장 도정공장



춘포로 간다. 원래 전북 익산군 춘포면 대장촌리였는데, 대장촌이란 지명이 일제 잔재란 이유로 춘포리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동네는 19세기 후반부터 대장촌大長村이었고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던 일본인들이 대장촌太場村이라 표기하면서 생긴 오해와 편견이다. 높이 7미터 만경강 독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19세기 후반까지 황무지였던 이곳은 1894년 동학혁명 당시 녹두장군이 군량미를 보관하며 역사에 언급되었다. 취락을 형성해가던 20세기 초 일본인 지주들이 매입하고 개발하여 일본인 주도의 마을이 되었다. 1904년 구마모토 출신 호소카와 후작은 조선 투자를 위해 측근 구로다를 전북 익산 대장촌에 보내 토지를 매입하고 농장을 설립하게 한다. 당시 대장촌에서 최대 지주 노릇을 하던 민영익도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잃자 호소카와 가문을 비롯한 일본인 지주들에게 사유하고 있던 독주항보攢走項淤라는 거대 수리시설과 토지를 팔아넘겼다. 500년 왕조의 몰락은 일본인 지주들과 빠른 행보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들은 농장을 구축하고 정치, 군사적 침략을 등에 업은 경제적 침탈을 준비하였다. 호소카와 농장은 1904년 설립 이후 15년 만에 420만 평의 대농장을 소유하고 구마모토의 가난한 농민들을 이주시켜 자신의 영지를 구축하였다.

이민자들이 들어오며 대장촌에는 경찰 주재소와 헌병대를 비롯하여 학교와 신사도 세워졌다. 그리고 1914년 최신 설비를 갖춘 호소카와

도정공장이 들어섰다. 너른 평야에서 수확한 벼를 반출하기 쉽게 현미로 가공하고, 같은 해 문을 연 대장역에서 군산으로 실어 날라 일본으로 보냈다. 기적소리 멈추고 선로와 플랫폼마저 거뒀던 최고最古의 역사驛舍는 춘포라 이름도 바뀌었다. 역 앞으로 난 널찍한 신작로는 호소카와 농장에서 대장역까지 수탈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같다. 그래도 길을 따라 외지인이 호소카와 도정공장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다. 어렵사리 찾은 도정공장에선 희망 연대 프로젝트 <춘포 가는 길>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농장에서 만경강 노을까지’ 마을을 보듬는 움직임이다. 1998년 폐업 처리된 도정공장은 양곡 창고로 사용되다 삼년 전 사라질 위기에서 지킴이를 자청한 새 주인을 만났다. 판자를 가로질러 구별한 공간은 일본식 번호가 붙어 있고, 세월을 담은 빛과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습기 차단을 위해 이중 마루를 설치하고 환풍구를 위아래로 둔 것, 함석을 경첩처럼 접은 섬세함엔 감탄사가 절로 난다.

바닥을 높이는 토목공사로 물이 밑으로 빠지게 설계한 방식이 100년을 버텼다. 바닥재를 덧댄 구조가 재밌는데 바닥 공간에 오래 잠들어 있던 벌씨와 만나니 왠지 먹먹하다. 오랜 세월이 선물한 자연 액자 또한 거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든다. 공장을 지키는 자연 그대로의 메타세콰이어와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뽕나무도 시간을 거슬러 올리는 힘이 있다. 내년 4월 예술가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니 기대가 된다.

도정공장 근처에 호소카와 농장을 설립 운영했던 구로다가옥이 있다. 이중 처마 형태의 지붕으로 일본식 가옥에 가장 가깝다는데 자세히 살펴 볼 수 없어 아쉽다. 역시 호소카와 농장 직원이던 에토 가옥은 1940년대 건물로 2층 목조 건물에 판자를 잇대어 지었는데 낯설다. 이들이 조성했던 일본식 마을 경관을 상상해 본다.

일본이 쌀 수탈을 위해 만든 익옥수리조합은 완주 대아리 일대에 대규모 댐을 만들고 대간선 수로를 통해 전북 서부 간척지의 관개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들은 비가 오면 대간선 수로가 대장촌 일대 배수로를 막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고, 물난리를 겪은 성난 시위대 5천 명이 전북도청을 향했다. 가물이 지속되면서 농민 600명이 삽과 팽이를 들고 갑문을 파괴하러 나섰는데 그들의 용기는 지배 권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런 와중에 절대적으로 조선의 쌀이 필요했던 일본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굶주리는 농민을 구제한다는 이유를 들어 1925년 만경강 개수공사를 단행한다. 크게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사행천蛇行川, 만경강을 직선화하는 것과 범람을 막기 위해 강 양쪽에 제방을 쌓는 일이었다.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했지만 흙을 운반하고 제방을 쌓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생존을 위해 싸우는 조선 노



익옥수리조합

동자들의 뭉이었다. 개수공사로 재해가 줄고 생산성도 향상됐지만 수혜는 오롯이 일본인 지주에게로 돌아갔다. 제방공사로 갈 길을 잃고 연못처럼 되어버린 옛 만경강에 100년의 역사도 잠긴 것 같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려는 구舊 만경교를 지켜낸 애틋한 마음처럼 낯선 듯 낯설지 않은 특별한 춘포의 시간도 거듭나길.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인디.....

임방울 명창이 잘 불렀다는 ‘호남가’에 등장하는 함열은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도 순가락만 있으면 배고픔을 면했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만석꾼 삼부자의 미담이 자자한 마을이다. 조선시대 관아와 객사와 향교가 있던 함열현의 읍치, 함라마울은 조선 24대 헌종의 계비 효정왕후가 탄생한 길지이고, 호남인들의 과거 길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관아가 기능을 상실하고 경찰 주재소와 우편소, 면사무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조선 부농들이 시장 주변에 대규모 주택을 건축하며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궁궐 목수들은 지방공사에 관여하며 궁궐의 건축요소를 지방에 널리 확산시켰다. 공간은 다양성과 예술성을 넘어 경쟁적으로 부를 과시하기도 했다. 가장 늦게 입향한 이배원 집안은 상업과 해운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가장 이른 시기인 1917년 안채와 사랑채가 나란한 병렬형



에토 가옥

가옥을 지었다. 함라에서 씨족을 이룬 조해영 가문은 농장 경영과 광산에 투자해 성공하였다. 도편수가 1918년부터 3년에 걸쳐 열두 대문 집을 지었다는데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처마 아래 포치를 둔 공간이 특이하고 안채를 가리는 내담이 경복궁의 꽃담을 본뒀다. 1922년에 지은 별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인 일본식 건물로 방과 마루 한 칸씩, 주위에 툇마루를 두었다. 유리화 함석 등 근대적인 재료로 표현한 의장이 공간에 변화를 준다. 올해 국립수목원 지정 ‘한국 전통 정원’에 선정되었다는데 관리의 어려움이 느껴진다. 미개방인 국가 민속문화재 김병순 고택은 전북에서 가장 큰 99칸 집이라니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

함라마울의 자랑인 담장을 따라 걸으면, 직선과 곡선을 넘나드는 골목길 건너 삼부자집과 만나고 담장 사이는 다시 골목길이 된다. 좋은 터와 기운은 이런 걸까? 하는 상념에 빠질 때 또 다른 담장 끝에 함라노소老所가 있다. 1950년대 토지개혁으로 삼부자와 마을도 쇠락했다는데, 여전히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규율을 관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마을 회의체라니 낯설지 않은 추억의 익숙함이다.



조해영 가옥 별채



함라마울 담장

일제강점기 근대 물결로 축적한 부에 겸손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조선인 지주가 여럿 있던 마을은 개통되는 호남선 역을 마을에서 떨어진 와리에 설치하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비록 늦은 발전을 초래했지만 익산의 북쪽 곰개나루에서 함라마울의 풍성한 농산물이 한양으로 가던 모습이 그려진다. 곰개나루의 지는 햇살에 몸을 맡기며 이 낙조처럼 넓은 품을 가진 함라마울을 새겨본다. 🌄

정은정 회원



익산 미륵사터 중원 석등 하대석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 남아 있는 거의 모든 석등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8세기 이후에 만든 것으로, 실제 백제 의 석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여 규암면 외리外里 절터에서 발견된 산수봉황 무늬 벽돌(山水鳳凰文磚) 속에서 그 모습을 추정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벽돌에는 치미를 엮은 백제 사찰의 전각 앞에 낮은 받침대, 가는 기둥, 그리고 둥근 물체를 엮은 조형물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석등의 가장 단순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조명기구들은 중국 북위北魏(386~534) 분묘墳墓의 출토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한 조명기구를 불 교 사찰과 같은 종교 공간 안에서 의미 를 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백제인들이며, 그 흔적을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익산 미륵사이다.

익산 미륵사터에는 동원의 석탑과 금당터 사이, 그리고 중원 의 목탑터와 금당터 사이에 아름다운 석등 하대석이 한 점씩 남아 있다. 백제 특유의 꽃잎이 한 겹인 단순하지만 우아한 연꽃 문양으로 보아 7세기 전반 미륵사를 처음 지을 때 함께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석등 중 백제 의 연꽃으로 장식된 예는 부여 가탑리 절터 출토 석등 하대석, 공주 탄천 정치리 절터 출토 석등 하대석, 그리고 익산 미륵 사터의 석등, 단 세 건뿐이다. 이 세 점이 이번 전시에 모두 출품되었다.



산수봉황무늬 벽돌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의 빛을 미륵사 석등 밝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지난 10월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 7세기 전반 미륵사 창건기 석등의 모습을 디지털로 재현하고, 현전하는 백제 석등을 한자리에 모아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탐색하는 특별전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개최 중 이다.

익산 미륵사는 7세기 전반 무왕武王(재위 600~641) 때 세워진 백제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 이제 미륵사터에 남아 있는 백제의 흔적이라고는 석탑과 당간 지주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방문객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곳에 미륵사 창건 당시의 위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바로 석등의 받침돌(下臺石)이다.

석등은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빛’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며, 사찰 안의 어떤 조형물보다 우리 민족의 조형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창조물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무지無知와 무명無明을 깨치는 진리를 상징하고, 불교에서 진리는 부처의 가르침 혹은 부처 자신을 의미하니, 이러한 빛을 발하는 석등은 단순히 주변을 밝히기 위한 실용 도구가 아니라, 한층 깊은 의미를 지닌 종교적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석등 하면 떠오르는 형태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삼국시대 백제 사찰에 닿으니, 석등은 백제인의 창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여 가탑리 절터와 공주 정치리 절터 출토 석등 하대석



나만의 석등 만들기(석등 부재 조립)



석등 모형 쌓기

안타깝게도 서원에서는 석등 자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모양, 비슷한 크기의 화사석과 옥개석이 각각 세 점씩 남아 있어, 창건기 미륵사 3원 가람에 석등이 한 기씩 서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익산 미륵사는 백제의 무왕과 그의 부인이 금마金馬의 용화산龍華山 아래에 미륵삼존彌勒三尊이 현현顯現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미륵삼회彌勒三會의 광경을 본떠 3탑 3금당의 3원 가람 배치로 지은 절이다. 미륵삼회란, 미래불인 미륵이 이 세상에 내려와 행할 세 번의 설법을 의미하니,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각 금당에는 이와 같은 설법하는 모습의 미륵을 형상화한 불상이 모셔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의 마지막 구절에, 미륵은 우리 앞에 ‘등명燈明’으로 나타나실 것이라 하였으니, 미륵사의 세 금당 앞에서 빛을 발하던 세 기의 석등은 빛으로 현현하실 미륵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미륵사는 미륵의 모습을 가장 직관적인 방식부터 지극히 상징적인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한 미륵신앙의 성지였고, 석등은 미륵신앙을 구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 조형물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 밖에도 익산 미륵사터에는 상하 2단 구조의 옥개석 한 점, 백제의 연꽃무늬로 장식된 상대석 두 점과 독특한 연꽃 장식의 상대석 한 점, 그리고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간주석 한 점 등 총 열세 점의 석등 부재가 전하고 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이들 미륵사터 석등 부재 13점을 모두 모아 3차원 실측 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복원을 시도하여 창건기 미륵사 3원 가람에 서 있었을 석등에 가장 근접한 모습의 추정 복원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복원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인터랙티브 실감콘텐츠를 감상하며 스스로 나만의 석등을 만들어 보거나,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모형을 직접 살펴보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7세기 미륵사에서 최초의 빛을 발하던 석등의 점등 순간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있다. 추정 복원안을 참고하여 제작한 석등 모양 연등 앞에서 미륵불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으면, 연등에 불이

들어오고 장엄한 백제 미륵사 가람의 풍경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석등은 우리나라 사찰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흔하다. 그리고 그만큼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명기구인 석등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곳이 인도나 중국이 아니라 바로 백제였으니 그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 익산 금마에 거대 사찰을 세우고 왕궁을 정비하여 백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던 무왕의 꿈이 사그라진 것처럼 미륵사 석등의 불빛도 이내 사그라졌지만, 삼국통일 이후에도 고려를 지나 조선에 이르기까지 꺼지지 않은 미륵사의 법등法燈처럼 석등의 의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번 전시에서 시도한 미륵사 석등의 디지털 복원은, 2019년,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 수리를 마치고 다시 선 미륵사 석탑처럼, 창건기 미륵사의 위용을 되찾아 그 법등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석등의 출발점인 백제 석등의 원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익산 박물관



익산 미륵사터 동원 석등 하대석



미륵사 점등 체험

몇 해 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노걸대老乞大’, 낫선 이름이 궁금증을 불러온 전시물은 옛 책이었습니다. ‘노’는 애칭이나 경칭에 붙이는 말이고 ‘걸대’는 북중국의 몽골계 민족인 거란인을 가리키는 말(Kitai 또는 Kitat)의 음차입니다. 원元대 이후 중국이나 중국인의 대명사가 된 ‘키타이’에서 현재 중국을 부르는 말 가운데 하나인 ‘캐테이(Cathay)’가 유래합니다. ‘중국인을 일컫는 애칭’이나 ‘중국 사정에 흰한 중국통’이란 뜻의 노걸대, 중국어 교재의 제목으로 맞춥니다 싶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교육프로그램이 일시정지였던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노걸대>와 반갑게 재회했습니다. 해외 출입이 어려워진 시기, 단기특강 ‘우리 옛 선조들의 세계기행’에 다소나마 숨이 트였습니다.

고려와 조선이 이웃한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만주어), 일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노걸대>는 통역관을 양성하는 사역원에서 중국어 학습의 기본 교재입니다. 최초 14세기에 만들어졌으리라 하나 전하지 않고, 현전하는 16세기 초 간행된 가장 오래된 한글 번역본의 현대역을 살펴봅니다.

[중국인] 큰 형님,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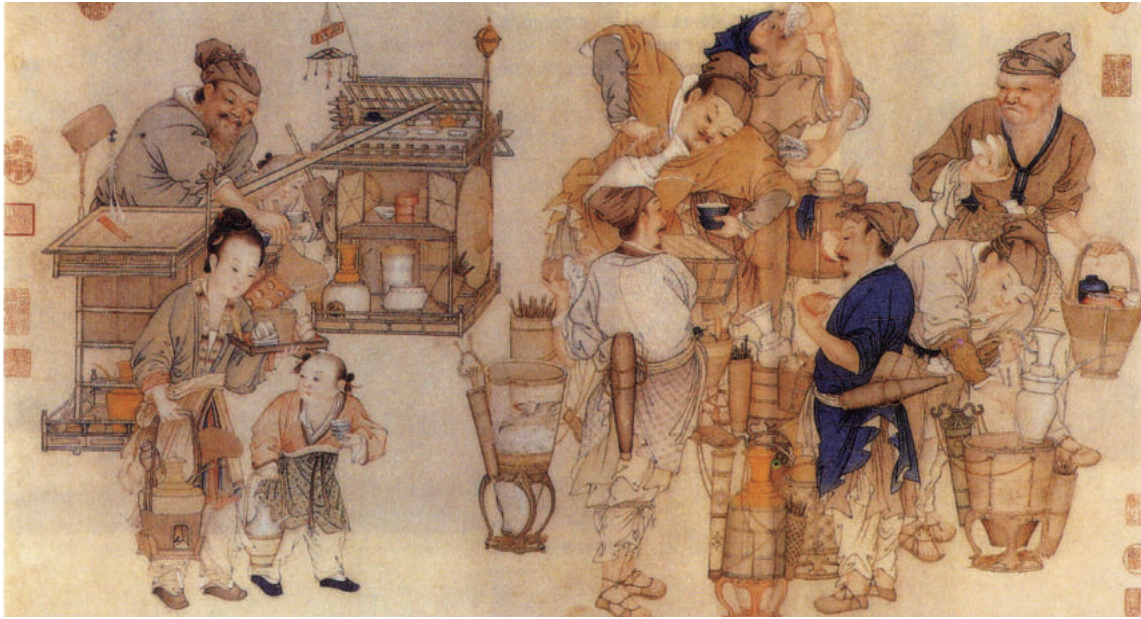
[고려인] 나는 고려의 서울(개경)에서 왔습니다.

[중국인]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려인] 나는 북경을 향하여 갑니다.

(중략)

[고려인] 당신이 이미 북경 향하여 가신다면 나는 고려 사람이라



요운한, 『매장도』

집 소식이 소중하다는 글은 당 두보의 시 ‘춘망春望’의 유명한 시구라 합니다. 대화 사이에 적절히 인용된 시구나 격언과 대가족의 안부를 묻는 길고 긴 인사가 인상적입니다. 흥역을 앓아 열꽃이 피었을 아이가 안쓰러우면서도, 남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코가 간질간질해진다는 속신에 웃음 짓게 됩니다. 14세기 중국 원대의 생활상, 풍속, 상품의 매매과정 등을 보여주는 <노걸대>는 한 편의 로드무비 같습니다.

북경 못 미쳐 와점에 투숙했을 때 여관 주인이 말사료 값을 비싸게 받아 중국 상인과 시비가 벌어지고, 민가에 머물게 되었을 때는 신원을 의심받고 헛간을 잠자리로 받게 된 이야기. 이와는 다르게 쌀을 구하는데 지어 놓은 밥을 선뜻 내준 후한 인심의 집주인 이야기. 인생의 설탕과 소금 같은 일로 웃고우는 데 시대와 지역의 구별이 없습니다. 당시 고려의 주 수출품인 말, 인삼, 모시, 삼베 등을

다루는 교역은 약 1년을 주기로 했습니다. 북경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데 9~10개월, 고려에 와서 물건을 팔고 사는 데 2~3개월이 걸린답니다. 고려 상인은 보통 산둥에서 갑과 능, 무늬 있는 비단과 솜을 구입하여 아청이나 분홍으로 염색하여 고려에서 파는데 중개료와 세금을 제하고 5할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도시 북경을 방문한 고려인의 소감은 어떠했을까요? 귀국 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느라 밤낮을 잊었을 듯합니다. 상점에 가득한 비단만 봐도 황홀경에 빠져들게 화려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초록색의 벽돌에 구름무늬를 놓은 비단, 연초록빛의 보상화를 무늬로 한 비단, 검은 초록빛의 천화天花의 팔보八寶를 상감한 비단, 초록빛의 벌이 매화에 걸려 있는 무늬의 비단... 도홍빛의 어깨걸이에 구름무늬를 한 비단, 짙은 붉은색에 금실을 드러서 짙 비단, 은홍빛에 작은 연꽃을 무늬로 한 비단, 살코기 빛깔의 넝쿨 모란꽃을 무늬로 한 비단...’

“비단이 장수 왕서방.....
핑호와 핑호와.....”
어릴 적 들었던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문양과 색채의 향연이었을 비단가게를 상상해봅니다.

우리는 중국말이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원래는 “됐어”, “충분해”라는 뜻을 지닌 중국말 “썰라썰라”를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함부로 말할 때 휘뚜루마뚜루 써버립니다. 한편 우리말을 모르는 중국인들은 한국인은 “후구리뚜구리” 떠든다고 느낀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말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중국어를 익힌 고려인에게 썰라썰라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감정을 담은 말로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고려인과 동행한 중국인은 의미는 알지 못해도 우리말을 후구리뚜구리로 듣지 않았으리라 싶습니다. <노걸대>의 마지막은 훗날을 기약하는 고려인의 인사말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을 침묵이 대신합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중국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려인] 형님, 우리는 돌아갑니다. 형님,



1747년 북경의 모습



낙원은 어디에

지난여름 인터넷에서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예약 전쟁이 벌어졌다. ‘세기의 기증’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견희 회장의 기증 미술품 가운데 대표적 작품들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선을 보였기 때문이다. 7월 21일 시작된 전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예약뿐이었는데, 30분당 20명, 1시간당 30명은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고 말았다. 결국 중앙박물관 전시는 못 본 채 끝나버렸고, 현대미술관 전시는 9월 중순이 되어 서야 겨우 볼 수 있었다. 34명의 작품 58점이 나온 이번 전시의 관람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부지런히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들어선 전시실에서 처음 만난 작품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특이한 병풍이었다.

백남순의 <낙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남순’이라면 여성일 텐데 낯선 이름이었다.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렸으니 흔히 말하는 서양화라 할 수 있는데, 8폭 병풍이라는 지극히 동양적인 형식으로 꾸몄다. 그림 내용에서도 산과 계곡, 폭포와 호수 같은 배경은 전통 산수화와 비슷한데 여기저기 야자수가 서 있고 서양식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으며 물가에서 옷을 벗고 있는 두 여인, 그물을 들고 있는 근육질의 어부처럼 사람들의 모습은 서양사람이었다. 옆에 붙은 설명에도 ‘서양화를 공부한 1세대 한국 여류 화가, 남편 임용련과 파리에서 돌아온 후 평북 정주에 정착하여 제작한 백남순의 유일한 현존작’이라는 정보밖에 없었다. 궁금증을 품은 채 관람을 계속할 수밖에...

바로 옆에는 나혜석의 <화령전 작약>이 걸려 있었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시대를 앞서간 여성주의자’로 유명한 나혜석이지만 도판이 아닌 실물로 작품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원의 고향집 가까이에 있는 정조의 어진을 모신 사당 화령전을 그렸는데, 화면의 절반은 활짝 핀 작약꽃이다. 빨강과 초록이 주는 강렬함과 빠른 필치의 속도감이 느껴지지만 한편 당대와 불화했던 화가의 쓸쓸함이나 허무함도 깃들어 있는 것 같다. 근대의 물결이 몰려오던 1930년대의 식민지 조국에서, 일본에서, 파리에서 치열하게 고뇌했을 나혜석과 백남순의 그림이 마음에 들어와 담겼다.

장욱진이 스무 살 무렵인 1938년에 그린 초기작품 <공기놀이>와 1951년 한국전쟁으로 피난 갔던 고향에서 그린 <나룻배>, 그리고 1975년 작품인 <호도虎圖>를 한자리에서 보면서 작업의 변화를 따라가 볼 수 있었던 것도 즐거웠다. 조각가 권진규의 <자소상>과 <손>에는 추상조각이 대세이던 시절에 여전히 테라코타에 몰두했던 그의 절대적 고독이 묻어 있었다.



나혜석, <화령전 작약>, 국립현대미술관





박수근, <농악>, 국립현대미술관

박수근의 작품 세 점은 모두 한 변의 길이가 1미터를 훌쩍 넘는 보기 드문 크기의 대작이었다. 기법으로 보아 가장 후기의 작품으로 보이는 <농악>은 형태의 원근감이나 입체감이 사라지고 검은 선으로만 남아 화강암에 새긴 오래된 암각화처럼 보였다. 이 작품 맞은편 벽에는 김환기의 대형 벽화 <여인들과 항아리>가 걸려 있었다. 세로 281.5, 가로 567센티미터의 이 그림은 1950년대 최고의 방직재벌이었던 삼호그룹 회장의 저택을 신축하면서 주문한 작품이라고 한다. 나무, 백자항아리와 학, 사슴, 꽃, 새장 같은 작가가 좋아하는 모티브들이 모두 담겨 있으며 연푸른 색과 연분홍색이 주조를 이루는 따뜻한 느낌의 그림이었다. 옆 벽에는 빨강, 파랑, 노란색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색면 추상화에 10개의 점이 찍힌 <3-X-69#120>과 김환기 특유의 점화 형식이 완성될 무렵인 1973년 작품 <산울림 19-1173#307>이 걸려 있었다. 그 깊고도 오묘한 푸른색이라니... 그리 넓지 않은 이 방에서 눈호사를 맘껏 즐겼다. 박수근, 이중섭, 유영국, 장욱진, 김환기로 가득 찬 방이라니...

다음 전시실에도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이 많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여러 색깔이 섞인 실로 짠 돛자리 같기도 하고, 기와집과 그 앞의 너른 논밭 같기도 한 이성자의 작품 <천 년의 고가> 앞에서 남은 시간을 거의 다 보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다시 예약 창을 열었다. 이번에도 역시 쉽지 않은 여러 날의 시도 끝에 11월 첫째 주 다시 한 번 전시장을 찾았다.

그 사이 알게 된 백남순과 <낙원>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다. 서울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백남순은 1923년 일본 도쿄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한다. 그런데 바로 그해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공부를 접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약현성당 부설 가명보통학교의 교사로 일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풍경화와 정물화로 3년 내리 입선했다. 1928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은 떠난 그는 세계여행을 하고 있던 나혜석을 만나기도 했다. 그후 그림 공부를 하며 여러 살롱전에 출품하여 입선했다. 또한 미국 예일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으로 연구 여행을 온 임용련을 만나 파리 북서쪽 에르블레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린다. 1930년 서울로 돌아와 동아일보사 전시장에서 부부 귀국 작품전을 가졌다. 1931년 남편이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의 영어와 미술 담당 교사로 부임하자 그곳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지낸다. 이 부부는 오산학교에 다니던 이중섭의 첫 그림 스승이기도 했다. 광복 후 급히 남쪽으로 내려오느라 작품들을 전혀 챙기지 못했으며 임용련이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이 되자 백남순은 7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거기서 전쟁고아를 돌보는 일을 하던 그는 196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한국에서는 잊혀졌다.

그러다 1981년 <계간 미술> 여름호에 ‘반세기 만에 뉴욕 화실을 공개한 첫 부부 화가 백남순 여사’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본 가명보통학교 시절의 동료 민영순이 백남순에게 결혼선물로 받은 그림을 갖고 있다고 연락을 했다. 바로 <낙원>이었다. 민영순은 몇 달 뒤 집에서 다른 그림 하나를 더 찾아냈다. 임용련의 <에르블레 풍경>이었다.

두 번째 관람할 때 가장 오래 본 그림은 역시 <낙원>이었다. 또한 내내 궁금했던 테두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처음 봤을 때는 병풍을 만들 때 테두리를 자개로 장식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갈색과 흰색을 이용한 문양으로 테두리 장식을 멋지게 표현해 낸 것이었다. 오른쪽 폭포 옆 산길 저쪽에 마주 보고 있는 남성과 흰옷을 입은 여성은 신혼부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병풍이 후배에게 준 결혼선물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까? 언덕배기나 골짜기, 물가에 있



임용련, <에르블레 풍경>, 국립현대미술관

는 집들의 모양도 아주 다양했다. 기와집, 일본식 기와지붕도 보이고 초가지붕으로 보이는 정자도 있으며 호숫가에는 서양식 이층집도 보였다. 화면 가운데의 골짜기를 향해 노를 저어 가는 배 여러 척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혹시 무릉도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1936년이라면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데, 암울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상상했던 낙원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

길문숙 회원



새롭게, 소중하게, 슬기롭게

국립중앙박물관이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고, 언택트 전시와 교육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박물관을 클릭을 통해 눈과 귀로만 방문했어야 했다. 이후 티켓예약으로 관람객이 방문 가능해졌지만 소문난 전시에는 늘 그렇듯 내가 들어갈 틈이 비좁기 마련이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11월 초부터 국내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몇몇 특별전시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발품을 팔아 서울 곳곳의 새로운 전시를 소개할까, 젊은 세대들의 전시 관람 트렌드를 소개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선택한 것은 중앙박물관 소식이었다. 익산 특집의 겨울호이지만 다시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된 중앙박물관을 '새롭게, 소중하게, 슬기롭게' 즐길 수 있을 여러 가지 소식을 박물관 사람들을 통해 전하려 한다.

1 새로운 반가사유상실 오픈

11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올해 초 이제까지 상설전시관 3층 불교조각실에 자리하고 있었던 반가사유상실 개편이 결정되었고, 새로운 브랜드관으로서의 반가사유상실 설계비를 우리 박물관회의 기부금으로 후원하였다. '사유의 방'이라 이름 지어진 전시실은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는 관람객이 온전히 사색하고 유영할 수 있는 감각적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실에서는 국보급 반가사유상 2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두 점의 반가사유상이 전해주는 따스하고 깊은 미소처럼 모든 방문객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문화재단에서는 본전시실의 개편을 맞아 기존 국보 78호를 본뜬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다채로운 9가지 파스텔톤 컬러로 변신시켰다. 전시관람과 함께 기념으로 구입하여 집에서까지 홀로 조용한 사유를 누릴 수 있겠다.



2 기증의 소중한 의미 돌아보기

상설전시관 2층의 오른편 wings은 기증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사문화 예술의 보존을 위하여 한평생 소중히 간직해 온 유물들을 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감사함을 담아낸 장소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중앙박물관에서는 1981년 10월 13일 처음 조성된 동원 기증실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원 이흥근실 40주년 기념전: '2021년 가을, 그분을 기억하다'》를 개최하였다. 전시에서는 국보급 서화와 도자 등을 선보인다. 전시 포스터의 전경으로 차용된 <정수영 필 해산첩>의 모습이 특히 장대하다. 가을 속 붉게 물든 금강산을 담담하게 정갈히 담아낸 필체가 역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울긋불긋하게 움직인다. 해산첩 속 금강산 곳곳의 모습은 디스플레이로 함께 전시된 영상으로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반대편에는 고희동과 이도영이 함께 그린 <기명절지도>가 있어 산속 정자에서 내가 마치 그들과 안주상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술을 마시며, 시를 읊고, 음식 맛을 음미하다.' 이도영이 장난스레 던진 화제에 고희동이 재치 있게 안중식 선생에게 발문 차례를 슬쩍 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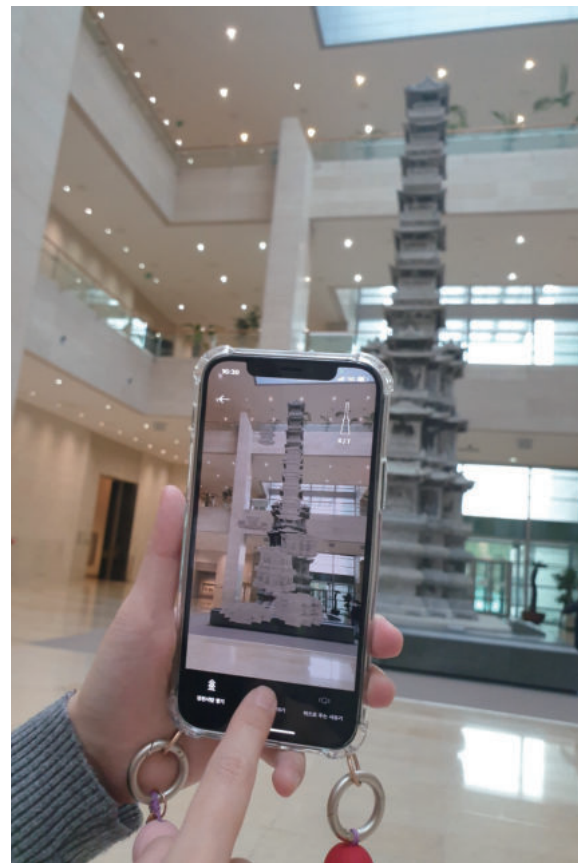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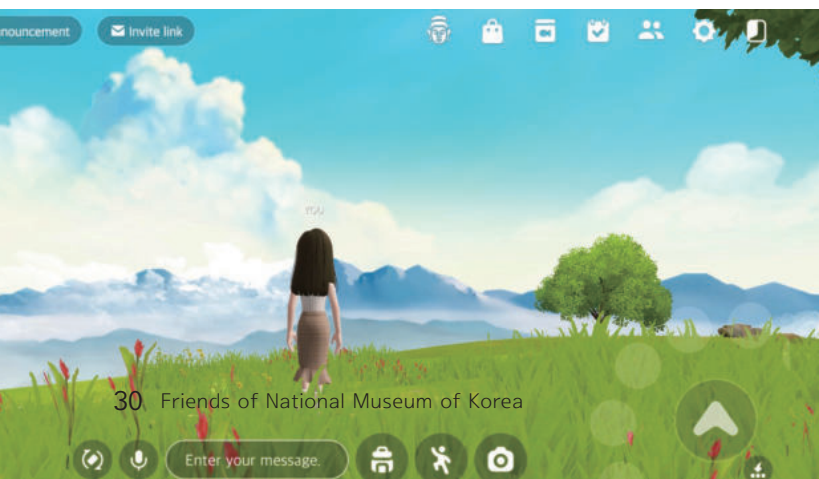


3 박물관을 즐기롭게 노는 방법

PART1. 가상현실(VR)의 사유의 방, 힐링동산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0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가상전시장 힐링동산을 오픈했다. 앱 스토어에서 제페토를 다운로드한 뒤 회원가입을 마치면 나의 가상이름과 아바타 설정이 가능하다. 이후 입장을 위해 월드 카테고리에서 검색하여 박물관의 힐링동산(peace world)에 입장이 가능하다.

다채로운 들꽃이 가득한 언덕 위에 반가사유상이 자리잡고 있다. 동산 너머 멋지게 펼쳐진 산수풍경으로 마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동이 매끄럽지 않다는 점이 살짝 아쉽지만 이마저도 좋지 않은가.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아직까지 박물관 방문이 망설여진다면 힐링동산에 잠시나마 들러 평안의 시간을 갖기를.



PART2. 디스플레이로 유물 감상하기

얼마 전까지 <故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했던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 옆 휴게공간에는 명품실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유물이 모자이크처럼 전시되어 있고 그중 보고 싶은 유물 하나를 터치하면 유물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손으로 상하좌우 움직이면 이곳저곳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들도 보인다.

전시장 곳곳에도 터치 디스플레이가 진열되어 있다. 경천사탑의 경우 전시관 1층에서 탑의 맨 꼭대기까지를 보기 어려운데, 전시장 3층, 불교조각실과 세계도자실 사이 복도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탑을 내려다보며 면면이 살펴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이용 후 손 소독은 잊지 말자.

PART3. 현실 속의 또 다른 현실, 증강현실(AR) 체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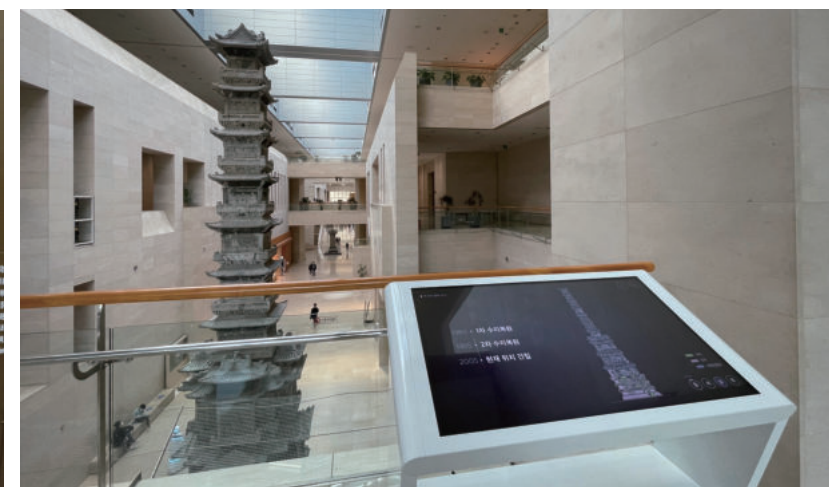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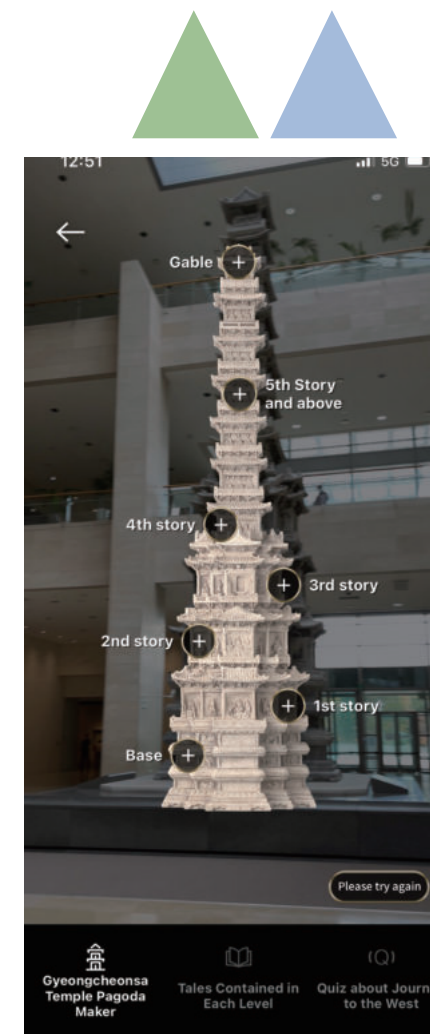
요즘 관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장이다. 증강현실은 내가 가진 휴대 전자기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면으로 내가 비춰보고 있는 현실의 또 다른 모습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는 외국의 대형 브랜드에서 할인제품을 알리거나 고객의 니즈를 찾아주기 위해 이용하던 기술이었는데 어느덧 우리의 박물관까지 다가왔다.

앱 스토어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해설 어플을 다운받으면 가상체험 관련 코너를 따로 만나볼 수 있다. 현재는 경천사지 십층석탑, 고구려 벽화 단편, 감산사 미륵보살과 아미타불 AR탐험이 제공되고 있다.

상설전시관에 위치한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경우 그 규모가 크기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가 어렵다. 이때 탑 앞에 서서 내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AR 탐험을 하게 되면 탑의 층층이 쌓인 이야기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가 화면에서 재생된다. 간단한 게임도 마련되어 있다. 지난 11월에 마무리된 <중국 고대 청동기-신에서 인간으로>의 전시에서도 각 코너마다 설치된 패드를 통해 고대 청동기를 마치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가지런히 놓인 오랜 유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다루어졌는지 알 수 있으니 전시를 다채로운 방법으로 보다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은 늘 낯설고 두렵지만 내가 가진 물건으로 쉽게 접하여 새로운 세계를 살펴볼 수 있으니 용기를 내보자. 🌍

김유정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① 특별 및 테마전시

기간	구분	명칭
2021.12.07(화) ~ 2022.03.06(일)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
2021.10.13(수) ~ 2021.12.31(금)	테마전	동원 이흥근실 40주년 기념전 '2021년 가을, 그분을 기억하다'
2021.09.14(화) ~ 2021.12.31(금)	테마전	장생長生-백자에 펼친 장수의 염원
2021.06.14(월) ~ 2022.06.30(목)	테마전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 - 실크로드 경계의 삶
2019.12.16(목) ~ 2022.03.01(화)	테마전	이집트실: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② 상설전시

기관	구분	주소
2021.11.12(금) 개관	상설전	사유의 방

③ 디지털 실감 영상관

기관	구분	주소
2020.05.20(수) ~	영상전시	영상관 1, 2, 3 및 경천사 십층석탑

숨은 전시 ●●●



머리에 이고 나른 상(公故床), 19세기, 김종학 기증

조선의 혼밥

양반 어른의 숙직 날
상노床奴의 무동을 탄 키 큰 소반

양 옆에는 좁다란 손잡이 구멍
앞에는 큼지막한 내다보는 구멍

하늘 향한 상판에
따끈한 밥과 정갈한 찬을 놓고
기름 먹인 종이를 덧댄 맛보자기로 단단히 여민다
아이가 실어 나르는 마음의 온기는
바람이 불어도 식지 않았다 🐼

* 2021. 03. 30. 기준



미륵사지 동석탑 안에서
바라본 서석탑